

| 예 배 | 일 시 | 장 소 |
|----------|--------------|------|
| 주일예배 | 주일 오후 1시 50분 | 예배당 |
| 청년 큐티 나눔 | 금요일 오후 9시 | Zoom |
| 한민 말씀방 | 매일 | 카카오톡 |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교회(히10:25)”

주일 예배 봉사위원

| | 07. 17 | 07. 24 | 07. 31 |
|---------|--------|--------|--------|
| 대 표 기 도 | 노지민 성도 | 김복자 권사 | 강희수 성도 |
| 성 경 봉 독 | 노지민 성도 | 김복자 권사 | 강희수 성도 |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안내 : YouTube에서 „브레멘 한민교회“ 검색하세요.

교회소식

7월 축복인사 - 물 댄 동산과 같은 복의 사람이 되세요.(성도 간에)
나는 물 댄 동산의 주인공이야!(자신에게)

1. 담임목사 - 우크라이나 난민촌 방문(12일~20일, 폴란드, 헝가리, 몰도바, 루마니아)
2. 졸업연주 - 김민혜 자매(15일(금) 17시, 음대 Konzertsaal)
3. Opera공연(14일~16일) 강희수 자매 출연, 장소: Unser Lieben Frauen Kirche)
4. 다음 주일 설교는 성주제 목사(함부르크 순복교회 담임)께서 해 주십니다.
5. 방학 중 고국을 방문하는 청년들은 목사나 청년 회장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

| | |
|----------|--------|
| 생일 | 조영재 형제 |
| 고국 병문 | 장래황 형제 |

지난주통계

| | |
|----------|--|
| 주일헌금 | |
| 십 일 조 | |
| 감사헌금 | |
| | |
| | |
| 합계(Euro) | |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Sang Ho Rhee)
예배반주 조 영 재 형제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 찬 양 Gemeindelied Liebevoll 찬양팀
- 송 영 Chor 반주자
- 기 원 Altargebet 이상호 목사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새번역) 다같이
- 찬 송 Gemeindelied 213장 다같이
- 기 도 Gebet 황희순 집사
- 성경봉독 Predigttext 에 4 : 1 - 5(구p753) 황희순 집사
(Esther 4:1-5)
-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새 가족 환영).....이상호 목사
-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이상호 목사
- 설 교 Predigt 두려울 때 생각나는 것은?..... 이상호 목사
- * 파송찬양 Abschlusslied 선한 능력으로 다같이
- *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 * 송 영 Chor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노지민 성도

† 기도제목

1.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게 하소서
2. 한민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학업과 생업에 기름 부어 주소서
3. 김민혜 자매의 졸업연주와 학기말 시험과 Opera 공연을 위해
4. 브레멘의 각 대학에 입학한 한국유학생들이 한민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5. 우크라이나와 세계 평화와 경제 안정을 위해
6. 김선택, 장보경(형가리)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신앙적 용기가 시련을 이긴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창47:5)” 이 다섯 글자로 요약했습니다. 어찌 이 말이 야곱에게만 해당되었습니까, 아마 시련에서 면제 된 인간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련은 생존의 대가로 우리에게 찾아오며, 때로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민족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신앙적 용기를 발휘해서 왕에게 나갔습니다(에4:16) 에스더의 용기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예전에 어떤 분이 사자 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시선이 사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그림을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용기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는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며 신뢰할 때, 우리 안에서 잉태됩니다.

용기는 위험과 위협 속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여러 과정에서 헤매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많은 노력은 용기가 없다면 한때의 선행으로 그칠 것이며, 덕으로 완결되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 결실의 기쁨은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정진하는 사람에게 인생이 허락하는 선물입니다.

많은 사람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고통 당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은 이제 젊은이들에게만 찾아오는 시련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새롭게 불확실한 시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 때 우리의 시선을 점검하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사자 대신 하나님을 향하게,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왕 대신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해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회복하는 말씀 묵상 / 장경철 목사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학 교수)

* 가치 있는 모든 일 속에는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와 넘어야 할 고통이 있다. - Gilbert K. Chesterton (20세기 영국의 작가) -